양주시 덕계동의 牧使公(휘 博) 종중

서울 제기동에 회관 마련, 현판식 거행

▲ 목사공종회 건물의 현판식을 행하고 있다.

10월 27일 11시 추밀공파 정헌공계·좌윤공계左尹公系(17世 휘 循) 목사공종회의 회관 현판식이 열렸다. 이 종중의 기조起祖 목사공牧使公은 휘가 박博으로 시조후 20세이며 정헌공正獻公 휘 왕후王煦의 6대손, 좌윤공左尹公 휘 순循의 증손, 참의공參議公 휘 영齡의 차남으로 성종 6년, 1475년에 출생하여 여러 내외직을 거쳐 공주목사公州牧使·상주목사尙州牧使를 지내 목사공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사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고 양주군 회천면檜川面 덕계리德溪里에 장사되어 세장조역을 이루면서 후손이 종중을 구성해 내려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곳이 양주시의 덕계동이 되었다.

지역이 의정부 동두천 간의 대도로에 접해 있고 새로 들어선 양주시청에서 북쪽으로 배후 지역이 되는 일대가 도시화로 개발되고 도로가 확장 또는 신설됨에 따라 위토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 30여억 원을 들여 이번에 그 부동산 종재의 확보책으로 회관 건물을 매입한 바였다. 회관 건물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13번지 약령시장藥令市場의 9아치 입구에 있는 5층 빌딩이고 전에 한양협회가 입주해 있던 곳이라 하였다.

현판식에는 내빈과 후손 70여명이 모였고 권정달權正達 중앙종친회장의 축사를 권경석權景晳 사무처장이 대독하였다. 권혁승權赫昇 추밀공종회장은 격려사를 하였다. 행사는 권우식權虞植 부회장 겸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권준식權俊植 회장은 내빈 소개에 이은 인사말에서 '목사공종중의 오랜 숙원이던 회관 건물을 장만하게 되어 선조의 유덕에 감사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해 마지 않는다. 윗대 종중의 유사와 방손 유지께서 많이 왕림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종중을 격려 현달하여 좋은 종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 본손 종원들은 그 동안에도 잘 해왔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종회가 발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하였다.

<사진·글 權奇允>

▲ 권준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재 남한만의 인구분포를 보면 우리 권씨가 백만이라 하지만 60만을 상회할 정도이고 전주씨는 6백만이라 하지만 약 3백만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가 권씨의 5배이다. 급제자는 전주이씨가 846인이고 우리는 358인이니 2.4배에 불과하다. 국성 왕족은 혼인관계에 유리한 여건이어서 어느 나라에서나 우수한 후손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4대양반을 지난날 1광산·2연안·3파평·4전주라 흔히 꼽았다. 그 으뜸인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조선조 문과급제자가 253인, 파평윤씨坡平尹氏가 338인, 연안이씨延安李氏가 241인이다. 파평윤씨는 70여만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데 급제자는 20인쯤 적고, 광산김씨는 25만여 인구로, 연안이씨는 14만여 인구로 그와 같은 급제를 내서 우리에게 각기 1백여인씩 뒤지니 비율은 오히려 우리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 권씨는 역대로 세도가로서 문별을 이룬 적이 없고 또 국혼으로서 임금의 외척이 되어 크게 힘입은 바가 하번도 없는 청한족淸澣族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통계수치가 우리 권씨가 우생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유전인자를 시조로부터 받아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다.

모든 생물, 동식물이 대대로 이어받는 유전인자를 DNA, 디옥시리보뉴클릭어시드deoxyribonucleicacid라고 한다. 이 DNA는 수명이 3천년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사람은 죽지만 그 유해에 남아 있는 DNA는 3천년을 살면서 서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DNA는 1천3백도 이상의 불로 태우거나 물속이나 습지에 들어 부패로서 소멸시키지 않는 한 존재하면서 친족끼리 교호하고 그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설대로라면 이같은 DNA의 존재와 세계가 곧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DNA, 즉 영혼이 아직도 존재하면서 우리의 유전체계에 음양으로 영향을 마치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우연히도 이 DNA설은 우리의 풍수사상과 비범한 관련이 있다. 좋은 땅에 온전히 묻혀 DNA가 교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조상의 묘소에 자손이 찾아가면 그만큼 이것이 교감하면서 더 좋은 상승의 간섭으로 북돋움의 기를 얻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의 효 사상과 선대 묘역, 즉 선영을 수호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보고 경험한 바를 이야기로 전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고 들은 이야기를 다시 퍼뜨려 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이어 말하는 것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의 시초는 가족사家族史이다. 가족사가 확대되어 민족사가 되고 국사로 발전하며 국가간의 국제사로 편성되어서는 동양사·서양사·세계사 등으로 진화되었다. 우리가 보학譜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가족사인데 이것이 가장 발달하여 족보와 보학의 최선진국이 된 것이 우리나라이다. 그 족보를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 안동권씨이다. 지난 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사랑방에서는 주객간에 날밤을 새우며 보학, 즉 가족사를 가지고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이러한 보학은 자기 것에 그치지 않고 처가와 외가의 보학에서 처외가와 외외가의 가족사로 번지는 등으로 그 끝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자에는 어느 정도 문벌가의 보학을 두루 섭렵해야 이야기 자리에 끼어들 수가 있고 사회에 출입을 하면서 괄시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이 결과로 족보의 기법이 발달되었고 이것은 민족의 정기로 이어져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이 출판한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족보가 되었다. 이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저절로 맞서게 되는 응집력의 소리 없는 형태가 되었다.

같은 우랄알타이계라도 몽고인은 자식에게 그 7대조까지를 암송하게 했을 뿐으로 족보를 만들지 않았고, 만주인은 중원을 정복해 대청제국을 세워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 국체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말았다. 보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물론 보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들 백성이 성씨를 갖게 된 것이 15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그 수효가 인구에 비해 타국보다 현격히 적다. 가령 프랑스는 얼마전에 2만 개 성씨이던 것이 지금 6만으로 늘었다고도 하고 이웃 일본은 20만 개라고 한다. 이는 그만큼 성씨의 역사가 짧고 그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명멸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성씨는 200에서 400 정도이고 성관별로는 3천3백 정도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래인의 새로운 성씨가 더해져 그 수효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통 성씨는 분관분적分貫分籍으로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분관 등으로 인한 파생성씨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씨의 정체성이 희박해짐을 뜻한다. 성씨와 동성동본의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혈연주의 등이 부정적 요소로 매도되고 성씨 등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선진화와 국제화인 것으로 인식한는데 전적으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응집력이 우리 겨fp의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돈독히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 성씨 등의 응집력을 돈독히 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가 선진화하여 현대사회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지평이 열린다.

우리가 조상대대로 전래해오고 있는 전통과 인습에는 아직 다 분석해 규명해내지 못한 무한대의 가치가 함유되어 있다. 전통과 인습을 지나치게 부정하고 파괴해서 이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게 금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령 땅이 없으니 묘소를 없애야 국토의 균형이 산다고 해서 이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한다. 선영은 그대로 살리면서 후손이 산림을 훼손치 않고 토장土葬되는 지혜도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선영이 없어지는 것은 성씨의 응집력이 해산되는 것과 상통한다. 친친親親의 응집력이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의식으로 되어 동족애와 향토애·애국심으로 확대강화되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공고화와 단결화의 등식이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일체의

오만상 五萬像

메모나 보조 수단이 없는 특강으로 1시간여에 걸쳐 명료히 설파되었다. 그리고 10분 정도의 휴식 후에 속개된 후반 강좌에서는 준비된 교재가 낭독 설명되었다. 이 교재 내용은 권오훈 편집인이 오래 전부터 안동권씨로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정리하여 종보사의 홈페이지에 띄워 놓아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은 것인데 전문이 9개항으로 되어 있다. 종보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그 9개항의 제목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권씨權氏는단일본單一本인가
- 득성유래得姓由來 :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어떻게 하여 생겼는가
- 병기달권炳幾達權과 반경합도反經合道
- 권權은 권세를 뜻하는가
- 권씨는 가장 먼저 족보를 만들었는가.
- 근심원원根深源遠이란 무엇인가
- 안동권씨는 몇개 파인가
- 촌수寸數와 항렬行列은 무엇인가
- 권성權姓의 사시四始란 무엇인가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재 전산화된 안동권씨 대동세보에서도 누락되어 계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기 계보를 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여성의 족보와 문중사 참여나 그 대우 또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의문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사진·글 權在琮>